

◆ Hana FX Column

◆ 시장 안정을 위해 단거리에 집중하는 원, 엔, 유로, 누가 과연 안정적으로 빠를까?

1. 대미 투자가 예정된 핵심 통화 원, 엔, 유로화의 최근 흐름

최근 미 재무장관 베네토는 자신의 SNS에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례적으로 원화 강세 지지 언급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일본 재무상과의 공조를 통해 미 재무부는 일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모두 올해부터 대미 투자가 예정된 한·일 외환시장 불안 시,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하튼 동 메시지에 의해 그간 약세를 면치 못했던 한·일 양국 통화는 크게 강세 전환하며 다소 환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유로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달러 신뢰도 저하에 따라 반사적으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며 1.20 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엔/원과 유로/원 환율 관점에서 각 통화들 여건들을 고려하면 최근래 원화에 대한 우호적 상황 개선 측면이 다소 우월해 보이는 상황이다. 일단, 원화에 대한 구조적 요인인 해외중시 투자 약화 가능성, 대형 업체들의 수출 달러 매도 출회와 순환적 요인인 엔화의 약세 제한, 국내 자본시장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등이 원화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엔화와 유로화는 각각 확장적 재정정책과 그린란드 사태 이후, 미국과 관세 갈등 등으로 경제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이 원화 대비 우려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과연 '26년 들어 어느 통화 안정성이 단기 관점에서 빠를까?

2. 대외 달러 약세 전환 속에 시장안정에 대한 단거리에 집중하는 원, 엔, 유로, 과연 어느 통화가 보다 빠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미-일 통화당국 공조 소식 이후,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제자리' 찾기 소식에 주요 대미 투자 국가인 한국과 일본, EU의 통화가치가 급등하였다. 사실 각 통화별 강세 요인이 일본 엔화 안정에 대한 미-일 재무장관의 공조와,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유로화 대비 달러 약세, 그리고 대통령 신년사 이후 코스피 5000p 돌파 및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상향 후, TACO 양상을 보인 트럼프의 기대 되어진 행동 등으로 각기 차이점은 있지만, 도메인인 달러 약세의 급격한 95선 터치에 각 통화들의 가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핵심은 과연 유로화와 엔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 지난 연말 이후 달러 약세에도 상당히 약화된 흐름을 보였는데, 그 흐름이 최근 국내적 시장 안정책 등을 통해 진정 바뀌고 있는지일 것이다. 현재 유로/원, 엔/원의 하락 흐름으로 보면 최근 기준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반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간 이들 세 통화의 변동성이 각국의 자체적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 등으로 확대 되었었는데, 과연 일련의 최근 이벤트들 이후 어느 통화의 안정세가 보다 강화될 것인가일 것이다. 변동성이라는 것에 대해 'Stylized Fact(정형화된 특징)' 관점에서 보면 이들 각 통화들의 변동성이 군집(Volatility Clustering) 현상을 나타낸다면 한번 커진 변동성 이후 잔잔한 변동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통화는 단기적 강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한다. 하지만, 조금 더 희망적이라면 원화의 1,400원대 근접 국면이 강화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이 다소 크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거리 골인에 원화가 좀더 다가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점이 원화 환율에 고무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